

금속노조 “노동부는 한화그룹 부당노동행위 즉각 수사하라”

한화그룹 불법 인사개입·노조탄압 규탄 ... 한화그룹·한화오션 수사, 책임자 처벌 촉구



금속노조가 29일 오전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그룹 전반에 걸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노조개입과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확인됐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며 “한화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한화그룹이 재계 6위에 오르기까지 인수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차별, 부당한 대우, 교섭권 침해가 반복돼 왔다”며 “그룹의 성장 이면에는 노

동자의 희생과 탄압이 자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화오션 노무관리자의 수첩에는 노조 내 특정 세력을 관리하고, 노조갈등을 유도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이는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증언에 나선 김유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장은 “한화오션에서만 작년 5명, 올해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들까지 노무관리 업무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개인 일탈, 노조갈등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진익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조직부장은 “한화창원사업장에서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차별하고, 교섭을 지연시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며 “2017년 압수수색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노동부의 미온적 대응 탓에 유사한 범죄가 그룹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환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국장도 “한화그룹은 삼성테크윈 등 4개 사업장을 인수한 이후 세 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노무법인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하고, 친기업 단체를 조합처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런 사태가 그룹 전체로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

한 노동부의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는 한화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

독과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며 “꼬리 자르기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금속노조는 한화그룹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4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입후보자

기 호	구 분	이 름	지 부	경 력
1	위원장 후보	박상만	현대자동차지부	- 2014년 현대자동차지부 조직강화부장 - 2016년 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현 서비스위원회) 부의장 - 2024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황영선	기아자동차지부	- 2014년 기아자동차지부 고용실장-조직실장 - 2019년 현장 라인종단 투쟁 건 업무방해 피 고발 - 2024년 금속노조 감사위원
	사무처장 후보	허 원	한국지엠지부	- 2021년 경남지부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지회장 - 2024년 금속노조 비정규 할당 부위원장 - 2024년 12월 4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종 승소
2	위원장 후보	박성철	한국지엠지부	- 1995년 대우국민차(현 한국지엠) 엔진소재 입사 - 2012년 민주노총 13기 중앙통일선봉대장 - 2023년 한국지엠지부 27대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김유철	기아자동차지부	- 1996년 기아차 입사 - 2014년 기아차지부 23대 부지부장 - 2022년 금속노조 12기 조직실장·기획실장
	사무처장 후보	엄미아	경기지부	- 1999년 삼남전자 입사 - 2012년~2019년 경기지노위 노동자위원 - 2022년~현)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
3	위원장 후보	양기창	기아자동차지부	- 2007년 광주전남지부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 - 2010년 기아 구조조정 저지 회사투쟁(정역1년, 집유2년) - 금속노조 10·11기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희문	현대자동차지부	- 2015년 현대차 정문 철탄투쟁(정역6월, 집유2년) - 현대차지부 12·13대 대의원 - 2022년 현대차지부 전주위원회 교육위원
	사무처장 후보	박경선	서울지부	- 노조 4·5기 지역지회 대표자회의 의장 - 서울지부 6·7·8·10기 지부장 - 노조 12기 부위원장

14기 비정규-여성-일반명부 부위원장 입후보자

기 호	이 름	지 부	경 력
비정규 할당 1	김형수	경남지부	- 2020년~2025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11·12·13기 지회장 - 2022년 51일 파업 주도 손배 470억(1심 진행 중), 집유 4년(항소심 대기 중) - 2025년 한화 분사 앞 30M CCTV 철탑 고공농성(97일)
여성 할당 1	고은하	한국지엠지부	- 2018년 민주노총 4기 성평등강사단 - 2023년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민주노총 대의원 - 2025년 금속노조 여성 할당 부위원장
일반 (5명 선출)	1 김규진	현대중공업지부	- 1996년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판넬조립 5부 입사 - 2020년~2021년 금속노조 11기 감사위원 - 현)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2 정상만	충남지부	- 금속노조 10기 충남지부 현대제철당진하이스코 지회장 - 2019년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 금속노조 13기 현) 충남지부 지부장
	3 구진성	한국지엠지부	- 2015년~2018년 금속노조 파견 대의원 - 2020년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조직실장 - 2022년 원하청연대위원회 및 고용안정특별대책위원회 위원
	4 김병철	현대자동차지부	- 2014년 현대자동차지부 정책부장 - 2020년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 - 2024년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감사위원
	5 이태현	현대중공업지부	- 2011년 현대중공업 입사, 현충지부 가입 - 2017년 현대중공업 분사·분할 반대 투쟁 관련 기소유예 - 2022년~2023년 금속노조 현충지부 24대 집행부 선전편집실장
	6 최순영	한국지엠지부	- 2004년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안전2부장 - 2020년~2021년 금속노조 11기 감사위원 - 현) 2024년~ 금속노조 13기 부위원장

2025년 중앙교섭 완료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10월 28일 2025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을 최종 합의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하느라 모두 고생하셨다. 산별협약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금속 노·사는 지난 4월 11일 2025년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 동안 열 차례 교섭을 벌인 끝에, 8월 5일 의견접근했다. 노조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앙교섭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88.1% 찬성률로 가결했다.

금속 노·사는 이번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산별협약 작업중지권 조항 신설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2026년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통상시급 10,420원과 월 통상임금 2,354,92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기로 합의했다.